

10 오피니언

사설

고성방가에 쓰레기... 사라진 시민 의식

교내 야간 음주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밤 10시가 되어 음식점이 문을 닫자 사람들이 캠퍼스 안으로 몰리기 시작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탓도 있다. 이들은 본관 계단이나 청운관 앞 벤치, 의과대학과 행복기숙사 앞에 놓인 테이블에서 마스크를 벗고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원칙을 어긴 경우도 많다.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취객의 소란 때문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한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캠퍼스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 미화 담당자의 업무를 가중시킨다. 담당자가 출근하지 않을 때는 ADI캡스가 미화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교내 야간 음주와 관련 문제로 고충을 앓는 것은 비단 우리학교

만의 일이 아니다. 인근에 위치한 서울시립대와 한국외국어대학교도 교내 음주, 야간 소음,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학교 차원에서 학생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수시로 순찰을 돈다 고 한다. 외대학보는 지난달 16일 교내 야간 소음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발행한 바 있다.

피해를 입는 이들은 많지만 교내 야간 음주 문제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폭력 행위 등의 실질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캡스가 할 수 있는 일은 강제성이 없는 해산 요청뿐이다.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캡스가 해산을 요청하자 되려 난폭하게 행동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지난달에는 만취 상태인 외부인이 수로에 떨어져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결국 사람들의 의식과 사회 분위기 개선이 이루어

어지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반복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제약이 생기다 보니 가족이나 지인과 야외에 앉아 답답한 기분을 풀어보려 하는 것이겠지만, 본인의 즐거움은 누군가에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동대문구 보건소는 우리학교를 비롯한 관내 대학에서 발생하는 교내 심야 음주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와 책임이 해당 대학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다. 결국 학교의 문제는 교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우리 학교는 벚꽃을 보러 온 상춘객이 증가하던 시기에 캠퍼스 출입 통제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정문 옆 새길을 통해 의과대학으로 가는 길목은 관리되지 않았다. 치과 병원 쪽으로 올라갔다 기숙사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막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최

근에는 동대문 경찰서와 협업해 5인 이상 집합과 교내 음주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세웠지만 사람들은 이를 본 척도 하지 않는다.

지금껏 학교가 취한 조치는 대부분 '권고' 형태로 사람들의 시민 의식에 기댄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번 주부터 시험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교내 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이 더욱 늘어나 학교 곳곳에서 소란 행위가 발생하면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학교는 야간 시간 캠퍼스 출입 제한, 야간 순찰, 소란 행위자 해산 조치 등 좀 더 강한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 또한 자신들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경각심과 타인을 배려하는 시민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세시봉

소통의 가격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팬과 아이들을 연결하는 유료 소통 플랫폼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작년 2월 SM엔터테인먼트가 출시한 '버블', 올해 1월 엔씨소프트가 출시한 '유니버스' 등이다. 매달 정기 결제를 하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연예인으로부터 프라이빗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만남과 공연이 불가능해지자 새로운 소통방식을 통해 수익 창출을 꾀한 것이다.

'버블'은 메시지를 받는 연예인 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1인권은 매달 4,500원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 '유니버스'도 금액만 다를 뿐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예인들은 수많은 팬들의 답장을 읽고 일상을 공유하는 사진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용자들은 개인 메시지 형식의 채팅방에서 제한된 답장 개수와 글자 수에 맞춰 답장할 수 있다. 마치 1대 1로 연락을 주고받는 환상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서비스 출시 후 기자는 신기한 마음에 유료 소통 플랫폼에 가입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이용권을 취소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유료화'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생긴 탓이다. 이전까지는 하루의 날씨, 점심 메뉴 등과 같은 메시지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통 플랫폼 내에선 메시지가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구입해야 할 상품이 되었다. 이러한 모습이 서비스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역설적으로 연예인과의 거리감을 느껴지게 했다.

또 해당 연예인에게 은연중에 소통을 요구하고 있는 기자 본인의 모습에서 순수하게 소통을 원했던 마음이 변질되는 것을 느꼈다. 돈을 지불한 사람들은 그에 상당한 대가를 돌려받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그들은 '팬'이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지불한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료 소통 플랫폼으로 아이들과 팬의 관계가 상품과 소비자의 관계로 변형되어 버리는 상황이 기괴하게 느껴졌다. 사람 간의 대화에까지 가격표를 붙여 사회 환원에 진열해 두는 게 바람직한가. 4,500원어치 소통보다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소통에 진심을 다해야 하는 건 아닐까.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대학 속 장애학생

진정한 자립



이봄 기자
lbom.kr@khu.ac.kr

“애초에 학교 안에서 장애학생을 잘 만나볼 수 없다” 교내 차량 유도원 김봉룡 씨의 말이다. 학교 건물이나 강의실에서 장애학생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다는 학생들도 많았다. 그러나 장애인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어야 한다. 장애학생을 외면하는 학교에서는 장애학생들이 점점 더 자취를 감추게 되고, 학교는 목소리가 작아진 그들을 이전보다 더 고려하지 않는 굴레 속에 빠지게 된다.

지체장애인의 날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지정되어 있는 기념일이다. 날짜는 매년 11월 11일로, 숫자의 모습이 지체장애인들이 신체적 장애를 이겨내고 직립하는 모양을 나타낸다. ‘장애를 이겨내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직립’하길 바란다는 그 의미에서

장애인을 향한 시각이 함축적으로 담겨있다.

장애인은 ‘재활 패러다임’에서 선택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가 아닌 수동적인 수혜자로 인식되어 왔다. 근대 자본주의 등장 이후, 생산에 비효율적인 신체를 가진 장애인들은 재활을 통해 신체와 삶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존재로 인식됐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사회 차원의 노력은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즉, 장애의 극복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대상은 개인이 아닌, 사회 환경과 구조인 것이다.

국립특수교육부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의 지표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타인의 도움 없이’라는 말이다. 결국 장애학생이 도우미 없이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때 우리학교는 진정한 배리어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도움이라는 부수적인 요소에 안주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들을 위한 더욱 본질적인 속고가 필요하다.



만평 진정한 공존이란

경희대학교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김가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피엔디